

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S사는 1979년 6월에 설립되어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 낚시바늘 (레저용)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'고급 낚시바늘 제조 전문 기업'
- 제품소개 : 낚시바늘(HS 제9507.20호)
 - 우리나라 낚시바늘 제조업체 수는 총 23개 업체 ('13년 기준)이며, 종업원 수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임

2. FTA 활용전 상황

- 내수 침체로 국내 굴지의 낚시용품 생산업체인 a사가 도산하는 등 낚시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S사 역시 15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고 회생이 불투명

3. 장애 요소

- FTA 활용지식의 부족, 협력업체들의 공감대 부족, 생산 공장 분산 및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

4. 극복 방안

- 한-아세안 FTA 활용과 세계적 기술력 확보
 - [가격경쟁력 확보] 한-아세안 FTA 활용 시 1.5~15%의 수입국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하기로 결정

- [고품질의 제품생산]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발명특허 3건, 실용신안 12건 등 획득으로 일본과 대등한 세계적 수준의 낚시바늘 생산 가능
-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재정비 및 세관 FTA 지원 등
 - [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축] 사장님을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FTA 전담조직 재정비
 - [FTA 인식 제고] 세관 FTA 전문가를 초빙, 전직원 교육 및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
 - [세관의 FTA 지원] FTA활용 실무에 있어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1:1 맞춤형 컨설팅, 원산지 사전진단, 인증수출자 인증* 등을 진행하였고, 낚시업계를 대표하여 FTA 활용지원 CEO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“위기를 기회로 삼아 FTA 활용 기반을 마련”
 - * 한-미, 한-EU, 한-아세안 FTA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
 - [박람회 참가] 또한,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낚시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,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던 국제낚시 박람회를 부산에 최초로 유치하여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참가업체에 FTA 활용정보 제공

5. 활용 효과

- 뛰어난 기술력과 FTA로 국내 5위 기업에서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
- 한-EU 와 한-미 FTA 발효에 대비해 유럽(스페인, 네덜란드, 프랑스 등) 및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낚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
 - 미국, 프랑스, 폴란드 등 신규바이어 발굴('11년)로 약 89만불 신규계약
- 수출증가와 FTA C/O발급 100%로 회사 고속성장 견인
 - (한-EU FTA) 유럽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, 한-EU FTA가 발효('11.7월) 이후 수출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출량이 150%이상 증가

- (한-미 FTA) 미국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, 한-미 FTA가 발효된 '12년에 수출 급증, '12년 말에는 전년대비 수출량이 350% 이상 증가
- FTA 활용률 100%
 - 한-아세안, 한-EU, 한-미 FTA 발효시기 이후 현재까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율 100% 달성
- (생산시설 확충) 한-아세안 FTA 발효로 인한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 '06년에 제2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'11년에는 한-EU 발효에 대비하여 제3공장을 증설하여 FTA활용을 위해 2개 공장 증설
 - 3공장까지 증설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한-미 FTA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1공장 옆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구매하여 증설할 계획
- (고용창출) 늘어나는 수출량에 대비하여 '06년에 직원 15명, '11년에는 17명, 도합 32명 생산인력 증원, 낙시비늘 포장 인력 40명 증원(40명→80명)

6. 시사점

1.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FTA를 준비

- FTA 시대를 대비하여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대표적 사례
 -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만 함
- 아울러 전 직원과 협력업체의 FTA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